

독서의 계절, 책의 매력에 '흠뻑'

전주독서대전 성료

어린이 공간 등으로 구성
강연·공연·전시 등 다채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은 여행객이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 전주에서 책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당신을 쓰세요'를 주제로 전주만의 독서축제인 '2019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했다.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완관본의 고장이기도 한 전주는 잘 갖춰진 도서관 인프라와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난 2017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전주독서대전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책 읽는 도시로 불리고 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행사공간이 △어린이 공간 △청소년 공간 △성인·소통 공간으로 나뉘어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책 축제로 치러졌다.

먼저 첫 날인 4일에는 올해 독서대전의 포문을 여는 '여는 이야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은희경 작가의 '책에게 말 걸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책으로 나누는 120년의 시간여행' 등 무대 위에 재현된 개막행사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간에는 북 칼럼니스트인 정혜윤 작가의 '어떻게 슬픔은 빛이 되는가' 강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축제 이틀째인 5일에는 100명의 시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당신을 쓰세요'를 주제로 전주만의 독서축제인 '2019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했다.

민들과 전주 올해의 책 성인 부문 선정 도서인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을 주제로 독서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작가들의 강연 어린이 독후활동대회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흔들'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의 이야기 △청소년들이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회 △명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월 △전주 풍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한지인형극 '효녀심청' △어린이들이 이야기 솜씨를 뽐내는

온고을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색깔 정도서인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을 주제로 독서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작가들의 강연 어린이 독후활동대회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흔들'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의 이야기 △청소년들이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회 △명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월 △전주 풍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온고을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색깔 정도서인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을 주제로 독서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전주 올해의 책 선정 작가들의 강연 어린이 독후활동대회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흔들'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의 이야기 △청소년들이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회 △명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월 △전주 풍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시는 내년에 또 시민들이 책과 독서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주만의 독서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기록과 출판문화의 도시로 3일간의 축제가 아닌 시민의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연중 독서진흥 사업을 펼쳐왔다"면서 "이번 2019 전주독서대전 행사는 점차 사라져가는 독서문화를 되살리고, 책의 소중함을 느끼는 전주 시민 대표 책 축제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전주시민체육대회' 개최

올해 신설된 어르신 단체부
대형 윷놀이 등 3개 종목 진행
시민 장기자랑 코너도 마련

전주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9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35개 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장애인단체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시민 화합과 우정의 잔치인 '2019 제26회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시민체육대회의 특징은 시간별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와 통장한마음 대회를 하나로 통합해 그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장소로 야외경기장인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옮겼으며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로 치러졌다.

풍물놀이 등 경기장 내 축제 분위기를 북돋는 식전행사로 문을 연 이날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이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1호 시민나무(은행나무) 주변에서 성화를 채화한 것을 시작으로 김현준 청년단체 대표, 신윤식 장애인단체 대표, 단티투 다투

화가정 대표를 거쳐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장이 경기장에 성화를 접화하면서 본격적인 축제에 돌입했다.

이어 참여한 35개 동 주민들은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일반부 경기의 경우 △단체줄넘기 △에드블론공굴리기 △박 터트리기 △400m 릴레이 달리기 등 4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장애인단체부 경기로 △투호 △전자다트 △고리걸기 등 3개 종목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어르신 단체부에서는 △대형 윷놀이 △투호, △고리걸기 등 3개 종목이 진행되는 등 총 10개 종목에서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졌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체력측정 △전주푸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홍보·체험부스 30동과 플라마켓 30동 등 약 60개 부스가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주종합경기장 메인무대에서는 올해 신설된 시민장기(노래)자랑 코너도 마련돼 앞서 열린 예선전을 통과한 16팀의 본선진출자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황권순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서로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노인회장 공익장 수상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의장이 지난 4일 개최된 '제23회 전주 노인회 날 기념행사'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 노인회장 공익장을 수상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박 의장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노인공경과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주시노인회장 공익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어르신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바로 서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효의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더불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평소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노인공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효철 기자

장수사 사과농사 50대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 중

최근 사과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북 장수 지역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사과 농사를 짓는 50대 농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후 3시에 장수군 장수읍 사과 산별장에서 A(58)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귀가한 아내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2일 사망했다.

8년 전 장수로 귀농한 A씨는 임대 한 밭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주 여인숙 60대 방화범, "국민참여재판 원해"

변호인 통해 신청... 재판부, 16일 공판 연 후 의견 종합 진행여부 결정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공소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해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해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2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제출한 증거, 출석할 증인 등을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하고 이어질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2곳에서 불길에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여인숙 주변 골목을 비롯한 수백개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 모습을 확인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km 떨어진 화재 현장에 약 6분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입은 옷과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주변 다른 장소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22일 오전 10시30분

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PC방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여인숙 골목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신었던 신발과 사용한 자전거 등에서 탄 흔적이 발견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식 및 압수물 감정을 비롯해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 심리분석, CCTV 인물 동일성 감정 등을 했다.

검찰은 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이를 숨기려한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A씨의 범행이 입증된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미래 드론축구 꿈나무 발굴 나서

전주시, 지상군 페스티벌서 '전국유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가 미래 드론축구 국가대표가 될 꿈나무 육성에 나섰다.

전주시는 미래먹거리산업인 드론·ICT산업과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신개념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해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불리고 있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지난 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19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드론축구 유소년리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드론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계룡시의 대한민국 육군이 주최한 이번 '2019 지상군 페스티벌'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드론축구대회를 비롯, 특전사 고공강하 시범, 군 정비체험, 인기가수 공연, 병영생활관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유소년 드

론축구대회에는 출전한 전국 16개 유소년팀 80여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체험행사 참여자를 포함한 1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부대와 전국 지자체, 관람객들에게 드론축구를 널리 홍보하고, 부대행사로 △드론축구 시범경기 △드론축구 시연 및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해 관람객이 드론축구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전주가 차세대 드론산업 메카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드론산업의 혁신성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11월까지 노송동 천사길 담장벽화 조성 추진

남고 칙칙했던 전주시 노송동 골목길이 19년간 이어져온 '얼굴 없는 천사'의 감동스토리를 담은 벽화로 환해지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2200만원을 들여 주민참여 마을개신 희망사업의 일환으로 노송동 천사길에 담장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노송동 문화마을 일원 담장에 '얼굴 없는 기부 천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벽화를 그려 마을주민과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기부 천사가 주는 감동을 느끼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창의적이고 양질의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공공디자인 심위위원회 심의 등 여러 차례의 보안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벽화조성안을 도출했다. 현재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속에 벽화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다. 시는 담장벽화 조성이 완료되면 노송동 천사마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구도심인 노송동의 노후담장이 산뜻해져 쾌적한 마을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의 주거복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인봉경로당 앞 골목길과 문화 1길 담장에 천사의 날개 등 아름다운 벽화를 조성한 바 있다. 과거 칙칙했던 담장은 단색의 채색과 예술인의 손길 이 닿은 벽화를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무경 시 생태도시국장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벽화조성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주민들로부터 '얼굴 없는 천사'가 주는 감동을 이어받아 주민 간 협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송효철 기자